「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4호(2019 겨울): 69-9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4 (2019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2.4.4

선택과 환경: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 결정 요인 연구

조 서 형*
엄 태 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2013년-2015년까지의 전국 자치단체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 운영형태, 재정적 환경요인인 재정능력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 지역축제의 특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지역규모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과 Newey-West 추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축제의 운영 형태가 공사파트너십일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전체 모형에서는 재정능력 중 이전재원인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 모두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역축제, 예산, 선택적 요인, 재정적 환경요인, 공사파트너십

Ⅰ. 서론

축제는 부가가치적인 활동의 제공, 방문객들을 위한 판로 형성, 지역의 이미지 향상 등으로 인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축제의 발전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축제는 지역 수준에서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며 개혁과 창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Wilson et al., 2017). 하지만, 지역축제가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예산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축제의 독창성, 차별성이 약화될 수 있다. Ekholm & Wallin(2000)은 예산이 환경

* 제1저자
** 교신저자

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적인 기획과 행위자들 사이의 점증적인 사고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산의 특성상 자주 변동하지 않으므로 역동성이 결여되어 축제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독창적인 사고가 경직된다는 것이다(Knardal & Pettersen, 2015: 682). 이와 같이 지역축제에서 예산이 가지는 경직성, 비역동성 등으로 인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축제에 정당한 근거 없이 작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북 남원시의 흥부제는 춘양제와 함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예산은 춘향제의 장터 입찰가인 1억 7000만원보다도 낮은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광고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나면 작은 예산으로 지역축제를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형식적인 축제가 된다는 것이다(프레시안, 2017.10.28.). 이는 지역축제의 특성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등이 예산에 고려되지 않고, 예산에 유연성 있는 변동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역축제가 운영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더불어 은평누리축제의 경우도 추진위원들이 무보수로 축제를 만들어 올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재정자립도라는 지방정부의 재정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은평구가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은평시민신문, 2017.11.15.).

개별 지역축제에서 예산 부족의 문제는 축제의 독창성, 차별성의 촉진을 제약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지역축제의 예산 규모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지방정부에 주어진 재정적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지역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실증분석을 통한 답을 함으로써 향후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축제의 성과 관점에서 경제적·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예산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들 또한 지역축제에서의 예산 지출 배분, 축제 규모에 따른 예산의 크기, 상호적인 예산 과정이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으나 어떠한 요인에 의해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이 형성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예산을 지역축제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다룬 경우(함덕영, 2000)가 있지만, 개별 지역축제 예산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보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예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예산결정 요인 연구에서는 주로 선거유무, 정당경쟁, 단체장 연임, 정책결정자의 의지, 인구학적 요인, 점증주의 등을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는 상이하게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공사파트너십을 선택적 요인으로 다룬다.

공사파트너십 운영형태는 지역축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해남읍장터축제는 공사파트너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 해남군은 번영회가 모든 문서를 작업한 것처럼 하였으며 관련 공고문 등에 번영회를 주관, 해남군을 후원으로 명시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번영회를 하위 기관 다루듯이 하여 명령을 지시서를 통해 요청하였다. 특히 공연이나 행사의 중심 되는 일은 대행 용역에 맡기고 번영회에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부여하여 회원들의 비판이 있었다(해남신문, 2017.10.27.). 이와 같이 지역축제의 운영 과정에서 주최와 주관 간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관계는 전략적·공식적 관계로서 축제의 성공과 유지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Wilson et al., 2017: 207).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개별 지역축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사파트너십을 포함한 선택요인과 재정환경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지역축제의 의미

축제는 문헌상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된다. 축제는 농경, 예술, 문화,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지만, 공통적인 속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축제는 특정 시점에 열리는 이벤트이며, 반복적이고 공공에 개방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 학자들에 의해서 축제는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으며, Uysal & Gitleson(1994)은 축제를 '잠재적 방문객에게 주목받는 관광을 증가시키는 이벤트' 로 정의한다. Saleh & Ryan(1993)은 '축제는 단기간 동안 주제에 기반을 두는 특징이 있다' 고 언급한다. Gets et al.(2010)은 '축제는 공동체의 가치, 이데올로기, 정체성, 연속성을 행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 Wilson et al.(2017)은 축제를 '공공적이고, 테마가 있는 의식' 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한편 축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축제와 특정 이벤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축제 연구는 최근에 별도의 연구 분야로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연구들은 축제와 행사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만들지 않았다. 축제와 행사 사이의 차이점은 축제의 주요 초점이 문화와 사회적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Getz et al., 2010). 축제는 정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행사와는 다르다. 하지만, 특정 행사는 표준적인 범주, 프로그램, 활동의 범주 외에서 일회적으로 혹은 빈번하지 않게 나타난다(Getz, 1994: 44). 따라서 축제와 행사의 구분은 표면적인 언어에 기반 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해당 특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측면에서 축제는 공동체의 경제를 향상시키지만 성공여부는 자원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축제에 헌신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박덕병 외, 2017). 축제는 또한 주민들 사이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구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Julien, 2007: 246). 이때 축제는 축제 내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주요 개인들의 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Gursoy et al., 2004). 지역축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지역축제의 중요성은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Grunwell & Ha, 2008; Kim & Ahn, 2014: 90).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지역축제를 방문객에게 특정 지역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여 지역 문화와 경제를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여긴다(Crompton & Love, 1995; Yuan & Jang, 2008). 특히 지역축제는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와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국에서 널리 보급되어 있다(Byun, Lee, & Han, 2009; Kim, Sun, Jogaratnam, & Oh, 2007).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

1)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지역축제를 소재로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중에서 특히 지역축제의 성과를 다룬 선행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역축제를 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를 재검토하면 성과 및 영향력를 본 연구, 지역적 특징과 관련하여 재정적 행태를 본 연구, 지역축제에서 예산의 크기·분배·기능을 본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rompton et al.(2001)은 관광 전문가들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반화된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정 축제에 대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축제 방문객과 상인 각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 연구의 개념적 근거, 측정 대상의 선정, 측정 지표 등을 검토함으로써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숙희(2001)의 연구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와 재정적 성과를 구분하여 함께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도에 단양에서 개최된 10개의 지역축제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와 재정효과(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등)를 분석하였다. O'Sullivan & Jackson(2002)은 사례연구를 통해 축제관광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저자는 축제를 home-grown, tourist-temper, big-bang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축제를 지역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에 따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축제를 유형화 하는 시도를 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하나씩만 대입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Kim et al.(2006)은 2004년 보령 머드 축제에서 나타나는 방문객들의 지출 패턴과 경제적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지출에 대한 자료는 설문 조사로부터 얻어졌으며 식료품, 쇼핑, 교통, 숙박, 엔터테인먼트,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식료품, 엔터테인먼트, 교통, 쇼핑 순으로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33.3 달러로 측정되었다. 저자는 해당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 주민들의 지출을 제외하고 측정하여 지역축제가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축제 참여자들의 동기, 체류 기간, 숙박 형태와 같은 정보들이 지출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아 분석의 유기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축제가 가져오는 경제적·재정적 성과를 보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축제의 지역적 특징이 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한 연구들도 있다. Long & Perdue(1990)는 1986년의 Carbondale Mountain Fair의 방문객 지출을 측정하고, 이러한 지출의 공간적 분포를 기술하였다. 분석결과 총지출인 $43,689 중 56.8%에 해당하는 $24,816이 Carbondale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Carbondale의 지출 중 76.5%에 해당하는 $18,993은 Carbondale 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운영되는 부스에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설문 응답자들에 의해 지출된 비용 중 74.9%는 지역 경제의 외부 주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정교화 된 투입-산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

는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공간적인 지출의 분배를 추적하여 기술적으로 보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Saayman, M., & Saayman, A.(2006) 또한 축제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치적 특징을 고려하여 예술 축제의 개최 위치가 축제의 경제적 영향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치가 축제의 경제적 영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지역 크기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재정적 관점에서 지역축제를 다룬 선행연구 중에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하게 예산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Smith et al.(2010)은 축제에서 펀딩이 다양한 부문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남부와 북부 켈리포니아의 축제 관리자들이 지출 예산이 마케팅, 행정, 엔터테인먼트, 운영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퍼센트를 명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은 축제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행정보다는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큰 축제는 이와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기술적인 분석에만 그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축제의 예산 배분 행태를 분석한 흔치 않은 연구라는 데 가치가 있다. Andersson et al.(2013)은 노르웨이의 세 개 자치주(counties)에 대한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축제 규모 피라미드(festival size pyramid)"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규모가 작은 축제는 연수가 낮고, 큰 축제는 연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많은 참석자를 큰 예산과 동일하게 보았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예산의 크기가 작고,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질문에 의해 수집된 자료에 의해 분석되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성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 규모가 작은 축제는 예산이 작고, 규모가 큰 축제는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Knardal & Pettersen (2015)은 Simon의 통제 체계(control framework)를 적용하여 축제에서 관리자들이 창의성과 통제를 어떻게 통합시키는 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예산이 장기간의 축제를 관리하는 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Simon의 주장에 의하면 상호적인 통제의 사용은 창의성을 촉진할 때 중요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성 울라프 축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예산이 경직적이고 자주 변동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대다수의 비판과는 달리, 축제의 모든 단계에 속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예산에 대한 상호적인 대화를 가짐으로써 축제에 창의성과 역동성을 가져다준다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기존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축제의 성과 관점에서 경제적·재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를 예산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들 또한 지역축제에서의 예산 지출 배분, 축제 규모에 따른 예산의 크기, 상호적인 예산 과정이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예산을 지역축제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다룬 경우(함덕영, 2000)가 있지만, 개별 지역축제 예산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보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정부의 의지부족이나 지방정부 자체의 재정환경 등을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축제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예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 〈표 1〉은 지역축제에 관한 각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가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들 간의 유사성, 한계점을 포괄하는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지역축제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성

저자	특성
Crompton et al.(2001)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효과 연구의 개념적 근거, 측정 대상의 선정, 측정 지표 등을 검토함으로써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지침을 제공
고숙희(2001)	다수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과(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와 재정적 성과(일반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등)를 구분하여 함께 분석함
O'Sullivan & Jackson(2002)	- 축제를 유형화(home-grown, tourist-temper, big-bang) 하는 시도를 함 -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하나씩만 대입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했다는 한계점
Kim et al.(2006)	- 해당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 주민들의 지출을 제외하고 측정하여 지역축제가 미치는 영향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 축제 참여자들의 정보들이 지출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아 분석의 유기성이 높지 않다는 한계점
Long & Perdue(1990)	- 공간적인 지출의 분배를 추적하여 기술적으로 보는 시도를 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음 -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 정교화 된 투입-산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
Saayman, M., & Saayman, A.(2006)	Long & Perdue(1990)와 유사하게 공간성을 고려하여 예술 축제의 개최 위치가 축제의 경제적 영향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
Smith et al.(2010)	- 축제의 예산 배분 행태를 분석한 흔치 않은 연구라는 데 가치가 있음 - 기술적인 분석에만 그쳤다는 한계점
Andersson et al.(2013)	연구 결과 규모가 작은 축제는 예산이 작고, 규모가 큰 축제는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직관적인 결과이며 해당 연구는 이를 기술적으로만 분석했다는 한계점
Knardal & Pettersen (2015)	Simon의 통제 체계(control framework)를 활용하여 예산이 경직성을 가진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달리 예산에 대한 상호적인 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축제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주장함

2)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개별 지역축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복지분야, 재난분야, 문화분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복지분야의 예산결정 연구이다. 최성락·노우영(2007)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상이해 진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가형, 행정가형, 정치가형으로 나누었

다. 분석결과 사회복지비 비중 및 1인당 사회복지비는 경영가형에 해당하는 단체장일 경우 행정가형 및 정치가형 단체장일 때 보다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점증적 요인 이외에 지자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동명(2009)은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장애인복지예산 비율과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연주·최영(2016)은 아동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재정능력 요인을 검토하였다. 서동명(2009)은 정치적 요인을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수, 장애인 관련 조례수 등으로 측정하였지만, 이연주·최영(2016)은 이와는 달리 정치적 요인을 선거의 유무와 경쟁 등으로 광범위하게 측정하였다. 이수창(2015)은 노인복지예산을 대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다른 예산결정요인 연구들과는 달리 정치적 요인에서 선거의 유무를 단순히 더미변수화하지 않고 선거가 있었던 해의 노인복지예산과 선거가 없었던 해의 노인복지예산 간의 변화 차이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유인주·양준석(2016)과 서상범·홍석자(2010)는 광역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하지만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점증적 요인, 복지수요의 기본적인 요인에 추가적으로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사업비중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업방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난관리의 예산에 관한 연구로 안치순(2017)은 수요요인, 경제요인, 사회요인, 정치요인, 점증요인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예산을 살펴보았다. 류상일·이주호(2010)는 단순히 재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더 나아가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해 경제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화분야와 관련해서 이병량·박윤환(2011)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정적·정치적 요인들을 비롯하여 65세 이상 노년층인구 비율, 청소년 및 청년층 인구비율, 여성인구 비율, 서울경계 근접성, 군 지역 여부, 대학 숫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상호(2013)는 관광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정치적 요인 및 정책행위자의 특성 요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정치적 변수가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단체장의 학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의 증감을 분석한 연구로 강문상·강성배(2015)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체 및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년도 예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법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예산 증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숙(2017) 또한 정치성을 비롯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와 같은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부처의 예산 증감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선거유무, 정당경쟁, 단체장 연임, 정책결정자의 의지, 인구학적 요인, 점증주의 등을 영향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축제의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공사파트너십을 선택적 요인으로 다룬다. 일부에서는 지역축제의 운영 과정에서 주최와 주관 간의 민간부문

과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관계가 전략적·공식적 관계로서 축제의 성공과 유지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고 평가한다(Wilson et al., 2017: 207). 또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은 주로 복지분야, 재난분야, 문화분야, 국회 및 정부부처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분야에서도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개별 지역축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사파트너십을 포함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 〈표 2〉는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들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과 더불어 그 외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2〉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의 비교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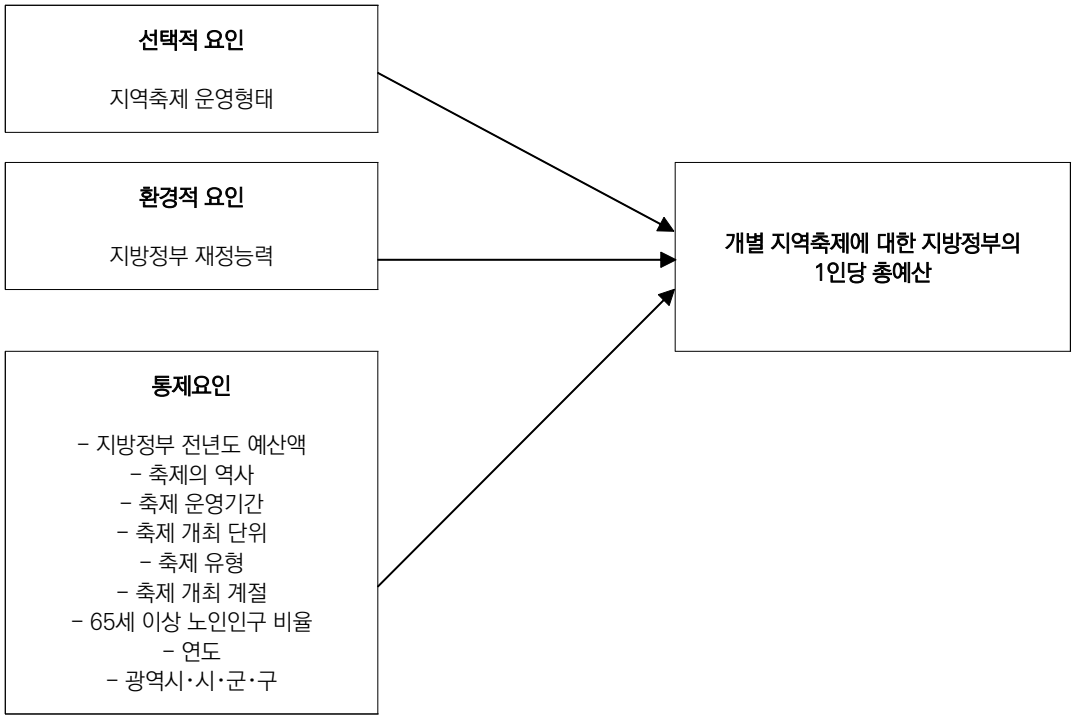
저자	비교 및 특성
최성락·노우영(2007)	지자체장의 개인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 기존 예산 결정 연구들과 다른 특성
서동명(2009) 이연주·최영(2016)	서동명(2009)은 정치적 요인을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수, 장애인 관련 조례수 등으로 측정함. 이와는 달리 이연주·최영(2016)은 정치적 요인을 선거의 유무와 경쟁 등으로 광범위하게 측정함
이수창(2015)	다른 예산결정요인 연구들과는 달리 정치적 요인에서 선거의 유무를 단순히 더미변수화하지 않고, 선거가 있었던 해의 노인복지예산과 선거가 없었던 해의 노인복지예산 간의 변화 차이를 측정하였다는 특성
유인주·양준석(2016) 서상범·홍석자(2010)	- 광역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이 공통적임 - 유인주·양준석(2016)은 서상범·홍석자(2010)와는 달리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에 추가적으로 정책사업비중, 자체사업비중, 보조사업비중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사업방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이 차이점
안치순(2017) 류상일·이주호(2010)	류상일·이주호(2010)는 안치순(2017)과는 달리 단순히 재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더 나아가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해 경제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차이점
이병량·박윤환(2011)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포함시킴
이상호(2013)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정치적 요인 및 정책행위자의 특성 요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
강문상·강성배(2015) 김정숙(2017)	두 연구 모두 국가사업의 평가 방식과 이에 대한 결과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데 공통점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지역축제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에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 외에도 선택적 요인으로 지역축제 운영형태, 환경적 요인으로 지방정부 재정능력을 포함시켰다. 통제요인으로는 전년도 지방정부 예산액, 축제의 역사, 축제 운영기간, 축제 개최 단위, 축제 유형, 축제 개최 계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지역의 규모에 해당하는 광역시·시·군·구 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1) 선택적 요인: 지역축제 운영형태(공사파트너십)

공사파트너십을 각기 상이한 부문에 속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현상으로 본다면, 이는 부문 간 사회적 파트너십(CSSP: cross-sector social partnerships)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부문 간의 파트너십은 최근 들어 잠재적인 발전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상호작용이다(Lund-Thomsen & Reed, 2009; Seitanidi & Crane, 2009; Selsky & Parker, 2005; Warner & Sullivan, 2004). 공사간의 파트너십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사회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조직적 모델을 제시한다(Austin et al., 2006). 구체적으로 환경보호, 경제적 발전, 빈곤완화,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참여 모델 (inclusive-participatory models)을 제공한다(Waddock, 1989; Warner & Sullivan, 2004; Westley & Vredenburg, 1997). 공사파트너십을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와 같은 전략(Klijn & Teisman, 2000) 또는 거버넌스의 도구(Peters & Prierre, 1998; Hodge & Greve, 2007)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공사파트너십은 네트워크사회에 적합한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된다. 이 때 공사파트너십은 거버넌스를 통치하는 활동전략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구성원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배응환, 2003: 77).

공사파트너십은 특성상 '동원(mobilization)' 이라는 잠재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존론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자원의 동원은 파트너십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받는다(권자경·이종수, 2010: 3). 기본적으로 자원의존이론은 내·외부집단과의 상호의존성을 제안하므로 공사파트너십에서 나타나는 상호교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자원의존이론에서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내부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다른 개체나 조직들과의 의존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이광훈 외, 2014: 93; 송낙길, 2014: 229).

공사파트너십은 자원의존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을 위한 도구(tool)로 볼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에 기반을 둔 협력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의 자원 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김필두·류영아, 2015: 285). 자원의존론에서 설명하는 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권한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Vigoda, 2002: 535). 기본적으로 자원은 자원의존 관점에서 조직이 지속되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Huang & Provan, 2006: 437-439). 결과적으로 파트너십의 형성은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며,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권자경·이종수, 2010: 6).

자원의존의 관점은 공사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파트너십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조직들의 자원이 제한되어있는 경우 경영진이 기회주의와 같은 신중한 행동을 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행태는 선호와 목표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자원의 제약에 의해 외부적으로 결정된다(Pfeffer, 1987: 34). 하지만 모든 회사가 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며, 자원의 충분성은 관리적 기회주의를 발생시킨다(Zona et al., 2018: 594). 자원부족의 상황에서 관리자들은 외부의 압력과 이해관계자의 감시로 인해 기회주의에 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리자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Shen, 2003). 반면에 자원이 충분해 지면 경영진은 더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 때 경영진은 자원을 자본의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투자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혜택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주장은 이사회 상호연결(board interlock)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 회사가 자원 제약 하에 있으면 이사회의 상호연결은 자원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자원이 증가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해 경영진은 이사회의 연결(board ties)을 활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Zona et al., 2018: 595). 즉, 이사회가 다른 이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경우,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상대 이사회에 의존하여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원을 자본의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투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축제를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 측에서는 사적부문의 자원 투자에 대한 기대로 인해 지역축제 이외에 가시적, 단기간 이익 극대화가 가능한 분야에 더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된다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더 적은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공사파트너십 관계에서 사적 부문의 재정지원은 공공부문이 가지는 예산에 대한 압박

을 줄여 정부의 자원을 다른 정책 우선순위로 옮길 수 있게 한다. 이로 인해 공사파트너십 하에서 정부의 예산 지출은 좀 더 작은 규모의 단계별, 매해의 예산 지출로 전환된다(Hodge & Greve, 2007: 549).[1] 개별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축제가 열리는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지원으로 인해 지역축제 이외에 다른 지방정부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가설 1.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의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2) 환경적 요인: 재정능력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역량인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김지경·정윤미, 2013: 236).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관한 이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우수하면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고, 반대로 재정력이 미흡하면 복지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해 다룬 연구들에서는 재정능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김지경·정윤미, 2013).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폭넓게 활용된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주적 통치권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기 때문이다(최재녕, 2005: 461). 이 외에도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으로 작용한다(김도엽, 2001: 84). 지역축제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양호하면 이에 투입되는 자원이 늘어날 수 있다.

가설 2.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 규모가 커질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변수의 조작화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13년-2015년 전국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현황 데이터를 활용한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재정 데이터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다. 그 외의 변수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자료를 얻었다.

1) Epstein (2005)과 Hopkins (2005)는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공사파트너십은 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거두어 예산을 낭비함 없이 더욱 인류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사파트너십이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정부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Hodge & Greve, 2007: 555).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각 지역의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을 사용하였다.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을 합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3)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선택적 요인, 재정적 환경요인으로 나뉜다. 선택적 요인으로는 지역축제의 운영형태로 공사파트너십이 포함된다. 공사파트너십은 운영성격상 축제의 주관과 주체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결합된 경우 1로 측정하고,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0으로 측정한다.[2] 이는 공사파트너십을 지방자치단체가 비정부 법인과 파트너십을 형성한 경우 1, 형성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한 연구(Girth, 2014)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지역축제의 추진주체가 주최기관과 주관기관으로 나누어질 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 민관공동의 경우가 포함된다. 산하기관이란 각 지역에 지부나 지점을 둔 문화원, 예총, KBS, 농협 등을 의미하고 민간단체는 축제추진위원회, 보존회, 연구회 등과 MBC, SBS 등의 민간 방송국이 포함된다.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사파트너십에 해당하는 민관공동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들이 함께 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이다. 이때 주최기관은 축제비용을 부담하며 주관기관은 축제행사의 조직과 운영을 담당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민간단체에 의해 함께 운영될 경우 공사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재정적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달려있기 보다는 재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재정적 요인에는 주민들의 자주재원부담액,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포함된다(서동명, 2009: 487).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우수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harkansky & Hofferbert, 1969; Bahl & Saunders, 196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국고보조금,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 지방세부담액 등으로 측정된다(이연주·최영, 2016: 236). 본 연구에서는 예산결정 선행연구(서동명, 2009; 김승연·홍경준, 2011; 이연주·최영, 2016)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지방정부 전년도 예산액, 축제의 역사, 축제 운영기간, 축제 개최 단위,

2) 예산을 기준으로 관의 예산 비중이 100%일 경우 '관', 민간의 예산 비중이 100%일 경우 '민', 민간과 관의 예산이 함께 투입되었을 경우 '민-관'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축제 유형, 축제 개최 계절을 포함시켰다. 그 외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연도, 광역시·시·군·구 변수를 통제하였다. 지방정부 전년도 예산액은 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결정된다는 점증주의 관점에 따라 의미 있는 통제요인으로 볼 수 있다.[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큰 경우 운영을 민간부문과 함께 부담하기 위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을 포함시켰다.

축제의 역사는 최초 개최 연도에서부터 해당 연도까지의 지속된 기간으로 측정하였다. 장기간 유지되어 온 지역축제일수록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축제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예산을 투입할 유인이 커질 것이다. 축제의 운영기간은 축제의 시작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일수로 측정하였다. 축제가 운영되는 기간이 길수록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커질 것이다. 축제의 개최 단위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기관, 민간으로 나뉜다. 축제를 개최하는 단위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 기관, 민간인지에 따라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상이해질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축제인 경우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축제보다 더욱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개최 단위를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축제의 유형은 가장 많이 분류되는 유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문화, 문화행사, 지역특산물, 산업문화, 생태자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4] 해당 변수에 대한 참조그룹은 문화행사로 하였다. 축제의 개최 계절에 따라서도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혼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혼합은 장기간 축제가 지속될 경우 계절 유형이 중첩되는 경우이다.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사계절의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 1인당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혼합을 참조그룹으로 설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병량·박윤환(2011)은 문화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지방정부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는 경향이 있다.[5]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지방정부에서 해당 연령층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을 더욱 투자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시기인 2013년-2015년을 연도더미로 포함시켰으며, 2015년을 참조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지역규모는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방정부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변수

3)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의하면 정책결정자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이 정책결정자 상호간의 타협과 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의 지출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4) 지역축제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흔히 분류되는 종류는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품축제, 자연관광축제 등 4가지이다. 그 이외에도 문화관광축제, 생태자연축제, 지역특성화축제, 일반지역축제, 경연·산업축제, 지역테마형축제, 레저스포츠축제 등으로 분류된다(김경선·서구원, 2010: 149).

5) 실버문화페스티벌, 서울 시니어 페스티벌,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시니어 락(樂) 축제,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울산노인축제,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아시아 노인 축제, 경산 노인축제, 봉화어르신 행복축제, 수원노인문화축제 등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의 참조그룹은 광역시·시·군·구 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역시로 보았다.

〈표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지표

단위: 백만원, %, 명, 년, 일

변수	측정내용			측정지표	비고
종속변수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총예산/지방정부 인구수 (백만원/명)	자연로그
독립변수	선택적 요인	공사파트너십		축제운영 기관(주최, 주관)이 공사협력을 한 경우 1, 아닌 경우 0	더미변수
	재정적 환경요인	지방정부 재정능력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세액/주민등록 인구수	
			1인당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지방교부세/총인구수	
			1인당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총인구수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세입*100(%)	%
통제변수	지방정부 전년도 예산액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년도 총예산	
	축제의 역사			처음 개최년도부터 해당 개최 연도까지의 연수	
	축제 운영기간			축제의 시작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일 수	
	축제 개최 단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가기관(서울대공원,녹지사업소,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민간	더미변수
	축제 유형			전통문화, 문화행사, 지역특산물, 산업문화, 생태자원	더미변수
	축제 개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혼합	더미변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만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100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더미변수
	지역규모			광역시, 시, 군, 구	더미변수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4〉은 2013년도-2015년도의 전국 지역축제와 관련된 변수들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인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총예산 평균은 0.018 백만원/명으로 나타났다[6]. 공사파트너십의 운영 형태를 띠는 지역축제는 전체 중 약 57.3%로 확인되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평균값은 약 0.408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방교부세의 평균은 약 1.729 백만원, 1

6)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은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자체예산, 후원, 그 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 중 예산이 없는 경우는 최소값이 0이다.

〈표 4〉 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 명, 년, 일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지방정부 총예산	1254	0.018	0.482	0	17.056
공사파트너십	1254	0.573	0.495	0	1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1254	0.408	0.241	0.009	1.237
1인당 지방교부세	1254	1.729	1.624	0.002	7.123
1인당 국고보조금	1254	1.119	0.857	0.043	7.892
재정자립도	1254	27.707	18.183	7.25	88.71
전년도 지방정부 예산액	1254	342.231	477.855	0	9624
지역축제 역사	1254	15.602	11.660	1	85
지역축제 개최기간	1254	6.940	9.444	1	108
광역자치단체 개최 단위	1254	0.053	0.223	0	1
기초자치단체 개최 단위	1254	0.927	0.260	0	1
국가기관 개최 단위	1254	0.017	0.128	0	1
민간 개최 단위	1254	0.003	0.056	0	1
전통문화	1254	0.179	0.384	0	1
문화행사	1254	0.371	0.483	0	1
지역특산물	1254	0.270	0.444	0	1
산업문화	1254	0.026	0.158	0	1
생태자원	1254	0.154	0.361	0	1
봄	1254	0.279	0.449	0	1
여름	1254	0.204	0.403	0	1
가을	1254	0.423	0.494	0	1
겨울	1254	0.081	0.272	0	1
혼합	1254	0.014	0.116	0	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254	18.428	7.274	5.86	36.59
2013년도	1254	0.451	0.498	0	1
2014년도	1254	0.295	0.456	0	1
2015년도	1254	0.254	0.436	0	1
광역시	1254	0.073	0.260	0	1
시	1254	0.383	0.486	0	1
군	1254	0.392	0.488	0	1
구	1254	0.153	0.360	0	1

인당 국고보조금의 평균은 약 1.119 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자립도의 평균값은 31.289이며, 전년도 지방정부의 예산액은 평균 342.231 백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축제의 역사는 평균적으로 약 15.602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지역축제의 역사와 가장 긴 지역축제의 역사는 각각 1년, 85년이다.[7] 지역축제의 개최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6.940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짧은 축제는

7) 역사가 가장 짧은 지역축제로는 2013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2013년도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2015년 충청남도 보령시의 제8회 무창포 쭈꾸미 도다리 축제, 제18회 보령머드

1일 동안 개최된 반면 가장 장기간 개최된 축제는 108일이다.[8] 전체 개별 지역축제 중에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개최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5.3%로 나타난 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개최된 지역축제는 약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의 국가기관 단위 개최는 전체의 약 1.7%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약 0.3% 정도로 확인되었다.[9] 지역축제의 종류 중 전통문화는 전체의 약 17.9%, 문화행사는 약 37.1%, 지역특산물은 약 27%, 산업문화는 약 2.6%, 생태자원은 약 15.4%로 나타났다. 축제가 열리는 계절은 봄이 약 27.9%, 여름이 약 20.4%, 가을이 약 42.3%, 겨울이 약 8.1%, 두 계절 이상이 혼합된 경우는 약 1.4%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8.428%로 나타났다.[10] 연도더미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각각 약 45.1%, 29.5%, 25.4%로 나타났다.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규모를 보면, 광역시가 전체의 약 7.3%, 시가 약 38.3%, 군이 약 39.2%, 구가 약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는 공사파트너십 운영여부에 따른 지역축제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1인당 지방정부 총예산이 평균 약 0.029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축제의 1인당 지방정부 총예산은 평균 약 0.003으로 나타나 공사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곳의 1인당 지방정부 총예산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의 경우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곳의 평균이 약 0.387 백만원으로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지 않는 곳의 평균인 약 0.435 백만원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반면, 1인당 지방교부세와 1인당 국고보조금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약 26.216%로 나타나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정부의 29.70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 지방정부의 예산액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는 경우가 평균 약 420.892 백만원으로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인 평균 약 236.862 백만원보다 높게 확인되었다. 지역축제의 역사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평균 약 16.155 년으로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인 평균 약 5.189 년보다 길게 나타났다. 이

축제, 제17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제8회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제5회 대천항 수산물 축제, 2015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제청소년어울마당이 있다. 반면에 역사가 가장 긴 지역 축제는 2015년 전라북도 남원시의 제85회 춘향제이다.

8) 개최기간이 108인 지역축제는 2014년 서울특별시의 광화문 문화마당이다. 개최 시기가 각각 봄(5.2~6.30)과 가을(9.3~10.20) 두시기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9) 대전시의 제12회, 제13회 아줌마 축제의 경우 민간 차원의 축제이지만, 기타(자체예산, 후원, 그 외)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의 예산 지원이 있었다.

10)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2013년 울산광역시 북구이며, 가장 높은 곳은 2015 년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공사파트너십 운영여부에 따른 지역축제 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 명, 년, 일

	공사파트너십 O					공사파트너십 X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 지방정부 총예산	718	0.029	0.636	0	17.056	536	0.003	0.005	0	0.046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18	0.387	0.218	0.009	1.237	536	0.435	0.267	0.010	1.237
1인당 지방교부세	718	1.905	1.716	0.007	7.123	536	1.494	1.460	0.002	5.312
1인당 국고보조금	718	1.211	0.917	0.078	7.892	536	0.997	0.754	0.043	3.124
재정자립도	718	26.216	16.692	7.25	88.71	536	29.706	19.848	7.79	88.71
전년도 지방정부 예산액	718	420.892	431.684	0	4000	536	236.862	515.387	0	9624
지역축제 역사	718	5.189	12.101	1	85	536	16.155	11.029	1	83
지역축제 개최기간	718	6.599	8.251	0	83	536	7.397	10.829	1	108
광역자치단체 개최 단위	718	0.049	0.216	0	1	536	0.058	0.234	0	1
기초자치단체 개최 단위	718	0.946	0.227	0	1	536	0.903	0.296	0	1
국가기관 개최 단위	718	0.006	0.075	0	1	536	0.032	0.175	0	1
민간 개최 단위	718	0	0	0	0	536	0.008	0.086	0	1
전통문화	718	0.198	0.399	0	1	536	0.155	0.362	0	1
문화행사	718	0.352	0.478	0	1	536	0.396	0.489	0	1
지역특산물	718	0.288	0.453	0	1	536	0.246	0.431	0	1
산업문화	718	0.021	0.143	0	1	536	0.032	0.175	0	1
생태자원	718	0.141	0.348	0	1	536	0.172	0.377	0	1
봄	718	0.290	0.454	0	1	536	0.265	0.442	0	1
여름	718	0.189	0.392	0	1	536	0.224	0.417	0	1
가을	718	0.460	0.499	0	1	536	0.373	0.484	0	1
겨울	718	0.053	0.224	0	1	536	0.118	0.322	0	1
혼합	718	0.008	0.091	0	1	536	0.021	0.142	0	1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718	18.968	7.779	5.86	36.59	536	17.704	6.473	6.91	36.59
2013년도	718	0.432	0.496	0	1	536	0.476	0.500	0	1
2014년도	718	0.306	0.461	0	1	536	0.280	0.449	0	1
2015년도	718	0.262	0.440	0	1	536	0.244	0.430	0	1
광역시	718	0.059	0.235	0	1	536	0.091	0.289	0	1
시	718	0.403	0.491	0	1	536	0.356	0.479	0	1
군	718	0.414	0.493	0	1	536	0.362	0.481	0	1
구	718	0.125	0.331	0	1	536	0.190	0.393	0	1

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현상과 관련이 있다. 실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지역축제 역사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로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지역축제를 길게 지속시킬 역량이 부족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지역축제 여사 간에 유의수준 0.5하에서 0.0562크기로 유의미한 음 (-)의 상관관계를 띤다.

지역축제 개최기간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는 경우 평균 약 6.599일,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평균 약 7.397 일로 확인되었다.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공통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기관, 민간 순으로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지역축제의 종류를 보면, 공사파트너십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문화행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산업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계절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가 운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가을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봄, 여름, 겨울, 혼합 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규모 측면에서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군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 구, 광역시 순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평균 18.968 %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17.704 %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은 지역축제 개최단위, 재정자립도, 지역 규모별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약 53%,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약 58.4%, 국가기관인 경우 약 19.1%로 나타났다.[12]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공사파트너십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뒤로 광역자치단체, 국가기관 순서로 공사파트너십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재정자립도가 하인 경우에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평균 65%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지역규모를 광역시, 시, 군, 구로 유형화했을 때 규모가 가장 큰 광역시가 공사파트너십으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평균 46.2%로 가장 낮았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를 띠는 이유가 지역축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나누어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재정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나 군(郡)지역에서 열리는 규모가 작은 지역축제의 경우 공사파트너십으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를 운영함에 있어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사파트너십을 맺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평균 0.019 백만원으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재정자립도가 하에 속하는 경우와 지역규모가 군에 속하는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 예산규모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개최 단위(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수준(하), 지역규모(군)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공사파트너십을 가장 많이 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이에 따라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12)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가 민간인 경우 공사파트너십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기초통계 평균값이 0으로 나타남

〈표 6〉 지역축제 개최단위, 재정자립도, 지역 규모별 기술통계

단위: 백만원, %, 명, 년, 일

		공사파트너십	1인당 지방정부 예산규모	전년도 지방정부 예산액	축제역사	축제기간
개최 단위	광역자치단체	0.530	0.0003	632.424	14.894	8.061
	기초자치단체	0.584	0.019	329.856	15.779	6.499
	국가기관	0.191	0.00005	169.976	9.381	28.429
	민간	0	0.00008	56.5	8.5	4
재정자립도 수준	하	0.650	0.062	308.751	16.280	7.726
	중	0.530	0.004	338.659	15.727	6.315
	상	0.580	0.0008	382.835	14.675	7.401
지역규모	광역시	0.462	0.0002	518.676	13.440	12.550
	시	0.602	0.002	356.959	17.656	6.377
	군	0.605	0.043	340.110	15.562	7.222
	구	0.469	0.0009	227.213	11.594	4.969

a)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3.73% 미만(하위 25% 미만)이면 하, 13.73% 이상(하위 25% 이상)이면서 36.45% 미만(상위 25% 미만)이면 중, 36.45% 이상(상위 25% 이상)이면 상으로 분류함.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전년도 지방정부의 예산액은 개최 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평균 632.424 백만원, 기초자치단체 평균 329.856 백만원, 국가기관 평균 169.976 백만원, 민간 평균 56.5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 수준이 하인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전년도 지방정부의 예산액은 평균 308.751 백만원, 중에 속하는 경우 평균 338.659 백만원, 상에 속하는 경우 평균 382.835 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우가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 측면에서는 광역시가 평균 518.676 백만원, 시가 평균 356.959 백만원, 군이 평균 340.110 백만원, 구 평균 227.213 백만원으로 광역시 규모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를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과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 간에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축제의 역사는 개최 단위 중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약 15.77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재정자립도 수준이 하에 속하는 경우 평균 약 16.280년으로 가장 길었다. 더불어 지역규모에서는 시의 경우가 평균 약 17.656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축제기간은 개최 단위 중 국가기관에서 평균 약 28.429일로 가장 길었으며, 재정자립도 수준이 하에서 평균 약 7.726일로 가장 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서는 광역시에서 평균 약 12.550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재정자립도 수준이 하에 속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공사파트너십을 가장 많이 하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과 동시에 축제역사와 축제기간이 모두 가장 길다는 것이다.

2.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개최 단위, 지역규모(광역시·시·군·구)와 같이 시간상 변하지 않는 변수를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을 바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3] 주요변수만을 포함시킨 모형 Ⅰ, 통제변수만을 포함시킨 모형 Ⅱ, 전체모형인 모형 Ⅲ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형 Ⅰ은 본 연구의 핵심변수만을 반영한 모형으로 통제요인을 제외한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유의수준 1% 하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설 1과는 반대방향으로 채택되었다.

재정적 환경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이전재원에 해당하는 1인당 지방교부세와 1인당 국고보조금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총예산 규모가 커진다는 가설 2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정능력 중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가설 2와는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지역축제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이에 대한 예산 투자가 줄어들고, 지역축제를 장기간 지속할 유인이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14] 모형 Ⅰ을 종합하자면, 개별 지역축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지방정부에 부여되는 재정적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운영 방식 전략을 고려하는 선택적 요인도 함께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통제요인만을 포함시킨 모형 Ⅱ에서는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이 유의수준 1% 하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1인당 지방정부의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년도 예산액이 현년도 예산액을 결정한다는 점증주의 관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는 민간을 참조그룹(reference group)으로 했을 때, 국가기관 개최인 경우 민간 개최보다 상대적으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의 기술통계상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통계상 지역축제를 국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국가기관 단위에서 개최하는 경우 축제를 통한 경제부흥 유인이 낮아져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유형 중 산업문화는 참조그룹인 문화행사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13)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어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14)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축제의 역사가 짧다(하-평균 약 16.280년, 중-평균 약 15.727년, 상-평균 약 14.675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유의수준 1% 하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정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지방정부에서 해당 연령층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을 더욱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역규모 중 광역시를 참조그룹으로 설정하였을 때, 시·군·구 모두 광역시에 비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모형인 모형 Ⅲ에는 선택적 요인, 재정적 환경요인, 통제요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통제요인을 포함시키고도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은 모형 Ⅰ과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1% 하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쳐 가설 1과 반대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행사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론적으로는 공사파트너십 관계에서 민간부문의 고립(isolation of citizens)이 공공부문의 비용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주장(Chen et al., 2013: 840)으로 설명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인터뷰 결과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로 공무원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 민간부문의 자립성 촉진을 위한 홍보·금전 등의 지원, 축제 내용상의 종합성·완성도 향상 등이 있었다(2018.10.18.).[15]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주장 중 일부는 효과적인 시민성(citizenship)이 공공(public)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에 필수적이라는 주장(Chen et al., 2013: 841)을 뒷받침한다. 또한 시민들이 서비스 공급에 관여하면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전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Hui & Hayllar, 2010: 127)에서도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 촉진, 민간부문의 자립성 향상, 축제 내용상의 발전을 위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 때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성공에 대한 열의는 지방정부가 개별 지역축제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유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재정적 환경요인 중 이전재원에 해당하는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는 유의수준 1% 하에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가설 2가 실증적으로 뒷받침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우수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Sharkansky & Hofferbert, 1969; Bahl & Saunders, 1965)와 일치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관한 이론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양호하면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재정능력이 미흡하면 복지에 투여 가능한 재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해당하는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

15) 전라북도 완주군의 청산도슬로우걷기축제, 충청북도 청송군의 청송사과축제, 경상남도 함안군의 함안 수박축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축제, 전라남도 구례군의 동편제판소리축제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정부의 문화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축제에 투입되는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 Ⅲ에서 재정자립도가 모형 Ⅰ과는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통제변인 중 지역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액은 모형 Ⅰ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년도 예산을 통제한 후에도 선택요인인 공사파트너십이 여전히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실증적 결과로부터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와 공사파트너십 형태의 지역축제 운영 간의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역축제 유형 중 산업문화 또한 모형 Ⅰ과 동일하게 참조그룹인 문화행사 유형보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문화 유형의 축제는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커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역규모는 모형 Ⅱ와 동일하게 광역시를 참조그룹으로 설정했을 때, 시·군·구 모두 광역시보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계수의 크기(size) 측면에서 보면 시(1.793), 군(2.346), 구(3.709) 순으로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상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으로 인한 편의(bias)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상관 여부를 밝히는 Wooldridge 검증을 한 결과 p값이 0.01보다 작은 0.0002로 나타나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분산성 여부는 Brush-Pagan 검정을 통해 판단하였으며, p값이 0.01보다 작아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이분산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Newey-West 추정모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앞서 제시한 Random-Effects 모형과 다른 점은 모형 Ⅲ에서 통제요인 중 지역축제의 개최 단위에서 국가기관 개최 단위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경우도 민간 개최의 경우보다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 Ⅱ에서는 〈표 6〉의 기술통계 결과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 개최 단위가 민간 개최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16) 전체 요인을 포함하는 모형 Ⅲ에서 모형Ⅱ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개최 단위의 부호가 반대되는 현상은 환경적 요인 중 자체자원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추정결과

		Random-Effects 모형			Newey-West 모형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
선택적 요인	공사파트너십	0.271*** (0.069)		0.140*** (0.049)	0.943*** (0.102)		0.148*** (0.052)
재정적 환경요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0.023 (0.083)		0.025 (0.047)	0.019 (0.103)		−0.003 (0.066)
	1인당 지방교부세	0.217*** (0.054)		0.559*** (0.052)	0.245*** (0.062)		0.572*** (0.062)
	1인당 국고보조금	0.323*** (0.122)		0.337*** (0.092)	0.400*** (0.143)		0.417*** (0.094)
	재정자립도	−0.029*** (0.005)		0.015*** (0.004)	−0.024*** (0.006)		0.019*** (0.004)
통제요인	지방정부 전년도 예산액		0.842*** (0.024)	0.860*** (0.021)		0.945*** (0.027)	0.918*** (0.026)
	지역축제 역사		0.005 (0.003)	0.003 (0.003)		0.003 (0.003)	0.003 (0.002)
	지역축제 개최기간		0.005 (0.003)	0.004 (0.003)		0.002 (0.003)	0.002 (0.002)
	광역자치단체 개최 단위		−0.565 (0.899)	−0.228 (0.755)		−0.573 (0.497)	−0.224 (0.190)
	기초자치단체 개최 단위		0.545 (0.784)	−0.169 (0.642)		0.650* (0.335)	−0.203* (0.123)
	국가기관 개최 단위		−1.656* (0.917)	−0.544 (0.775)		−1.490*** (0.510)	−0.442** (0.214)
	전통문화		−0.026 (0.079)	0.004 (0.070)		−0.077 (0.075)	−0.014 (0.061)
	지역특산물		−0.070 (0.082)	−0.093 (0.070)		−0.001 (0.073)	−0.056 (0.061)
	산업문화		0.383** (0.157)	0.236* (0.142)		0.457*** (0.152)	0.217** (0.107)
	생태자원		0.022 (0.088)	−0.026 (0.077)		0.041 (0.082)	−0.034 (0.073)
	봄		−0.154 (0.204)	−0.132 (0.189)		−0.160 (0.152)	−0.132 (0.125)
	여름		0.075 (0.203)	−0.029 (0.189)		0.079 (0.151)	−0.031 (0.122)
	가을		−0.013 (0.200)	−0.028 (0.187)		−0.055 (0.149)	−0.043 (0.123)
	겨울		0.0001 (0.216)	−0.093 (0.198)		0.016 (0.186)	−0.080 (0.156)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0.075*** (0.007)	0.009 (0.008)		0.077*** (0.006)	0.008 (0.009)
	2013년		−0.033 (0.046)	−0.024 (0.046)		−0.042 (0.060)	−0.013 (0.055)
	2014년		0.038 (0.047)	0.020 (0.047)		0.021 (0.054)	0.017 (0.048)
	시		1.228*** (0.415)	1.793*** (0.372)		1.211*** (0.322)	1.871*** (0.099)
	군		2.090*** (0.420)	2.346*** (0.373)		2.017*** (0.330)	2.377*** (0.101)
	구		1.165*** (0.420)	3.709*** (0.408)		1.260*** (0.331)	3.909*** (0.217)
상수항		−6.200*** (0.204)	−14.503*** (0.923)	−13.501*** (0.778)	−6.470*** (0.248)	−15.070*** (0.518)	−13.913*** (0.256)
관측치		1240	1235	1235	1240	1235	1235
overall		0.430	0.822	0.869			
F-value					156.87	269.29	744.66

*p〈0.1, **p〈0.05, ***p〈0.01
괄호 안 표준오차(S.E.)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2013년-2015년 동안 개최되었던 지방정부의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선택적 요인인 공사파트너십, 재정적 환경요인인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통제요인인 지역축제의 특성 등이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1인당 예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지역축제를 예산과 관련하여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축제의 예산 지출 배분, 축제 규모에 따른 예산의 크기, 상호적인 예산 결정과정이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예산을 지역축제의 성과와 성공요인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다룬 경우(함덕영, 2000)가 있다. 하지만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 및 분석하는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에는 지역축제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같은 선택적인 요인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환경 등이 원인으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인이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 연구에서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기존 지역축제 연구들은 분석단위가 지방정부인 데에 비해 본 연구는 분석단위를 2013년-2015년 시기의 전국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1인당 지방정부 예산의 규모 또한 각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 가치가 있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운영에 대한 전략적 선택요인인 공사파트너십의 경우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 1인당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적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이전재원인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 및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개별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정부 1인당 예산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지역축제의 예산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재정적 환경도 함께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지역축제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는 원인은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부문 및 전문가들이 지역축제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피드백(feedback)을 촉진시켜 지역축제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민간부문의 자립성 촉진을 위한 홍보·금전 등의 지원, 축제 내용상의 종합성·완성도 향상의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축제의 성과를 높이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개별 지역축제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할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의 절감재원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투자한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특별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하게 지

역축제를 남발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목표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9. 16.).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재정절감 정책은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함의와는 반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및 실무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적 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자치단체일수록 지역축제의 성과 향상을 위해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지방정부가 공사파트너십 형태로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에 대한 예산을 투자할 유인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재정을 절감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정책은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자치단체들의 전략과는 반대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개별 지역축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선택적 요인과 재정적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축제의 운영 형태인 공사파트너십을 선택적 요인으로 포함시켰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환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외에 예산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택(선거유무, 정당경쟁, 단체장 연임, 정책결정자의 의지)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전략적 선택요인으로 운영 과정의 공식적·전략적 관계에 기반을 둔 공사파트너십과 더불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relationships amongst actors)와 네트워크의 역할(role of networking)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17)]

참고문헌

강문상·강성배.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기술혁신학회지」, 18(4): 539-560.

고숙희. (2001).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단양군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10(2): 289-307.

권자경·이종수. (2010).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자원의존 관점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14(1): 37-62.

김경선·서구원. (2010). 지역축제유형에 따른 축제성공요인 영향 비교.「한국디자인포럼」, 29: 147-157.

김도엽. (2001). 지방정부의 '삶의 질'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5(2): 81-96.

17) Wilson et al.(2017)은 축제 연구를 위한 네 가지의 연구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의제로는 축제 전 단계(pre-festival stage), 과정(processes), 파트너십(partnerships), 주요 자원 (primary resources)이 있다.

김정숙. (2017). 부처별 예산증감의 영향요인 분석-합리성과 정치성.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4.

김정인·오영균. (2014). 산업인력양성에 관한 부처 간 협업 인식: 자원의존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6(3): 553-573.

김지경·정윤미. (2013).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김필두·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283-306.

류상일·이주호. (2010).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국가위기관리연구」, 4(1): 1-15.

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Ⅱ: 2014년 기준 실태분석」.

박덕병·이민수·김소윤·신현배. (2017). 지역축제 서비스 품질의 방문객 만족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4: 185-197.

배응환. (2003).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조직의 이론과 실제. 「한국행정학보」, 37(3): 67-93.

서동명. (2009).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485-514.

서상범·홍석자. (201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151-177.

송낙길. (2014). 지방문화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9(2): 225-252.

안치순. (2017).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1(1): 3-35.

윤인주·양준석. (2016).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115-139.

이광훈·김권식·박순애. (2014). 정부싱크탱크의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행정논총」, 52(2): 92-118.

이병량·박윤환. (2011). 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5(1): 215-239.

이상호. (201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정치체제적 특성 요인이 관광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5(4): 3-24.

이수창. (2015).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 분석: 16 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7(2): 57-76.

이연주·최영. (2016).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52): 223-255.

정규진·서인석·장희선. (201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1): 171-202.

최성락·노우영. (2007).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연구」, 7(1): 115-131.

최재녕. (2005).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재정지출 결정요인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451-47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
함영덕. (2000).「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무분별한 행사·축제, 지방재정 축낸다–행자부,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노력 순위 공개-」.
「은평시민신문」. (2017). 은평누리축제 예산부족문제는 축제성장 발목잡는 이유. 11.15.
「프레시안」. (2017). 흥부제 쥐꼬리만한 예산, 언론사만 배채워. 10.28.
「해남신문」. (2017). 해남읍 장터축제 무산… 민관협력 절실. 10.27.
국가통계포털 stat.kosis.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지방재정 365 lofin.mois.go.kr
Andersson, T. D., Getz, D., & Mykletun, R. (2013, April). The "festival size pyramid" in three Norwegian festival populations. *In Journal of Convention & Event Tourism*, 14(2): 81-103. Taylor & Francis Group.
Austin, J., H. Stevenson and J. Wei-Skillern (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1-22.
Bahl, R. W., & Saunders, R. J. (1965). Determinants of changes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National Tax Journal,* 18(1): 50-57.
Byun, W. H., Lee, T. J., & Han, S. H. (2008). The assessment model for cultural festival budgets. *Tourism Analysis,* 13(5-6): 461-471.
Carlsen, J., Andersson, T. D., Ali-Knight, J., Jaeger, K., & Taylor, R. (2010). Festival management innovation and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1(2): 120-131.
Chen, C., Hubbard, M., & Liao, C. S. (2013). When public–private partnerships fail: Analysing citizen engagement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cases from Taiwan and China. *Public Management Review,* 15(6): 839-857.
Crompton, J. L., & Love, L. L. (1995). The predictive validity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evaluating quality of a festiv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4(1): 11-24.
Crompton, J. L., Lee, S., & Shuster, T. J. (2001). A guide for undertaking economic impact studies: The Springfest examp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0(1): 79-87.
Getz, D. (1994).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A longitudinal study in Spey Valley, Scotland. *Tourism management,* 15(4): 247-258.
Getz, D., Andersson, T., & Carlsen, J. (2010). Festival management studies: Developing a framework and priorities for comparative and cross-cultur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1(1): 29-59.
Girth, A. M. (2014). What drives the partnership decision? Examining structural factors influenc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municipal wireless broadband.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7(3): 344-364.
Grunwell, S. and Ha, I.S. (2007). Film festivals: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for success. *Event*

Management, 11(4): 201-210.

Hodge, G. A., & Greve, C. (2007).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 international performance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3): 545-558.

Huang, K., & Provan, K. G. (2006). Resource tangibility and patterns of interaction in a publicly funded health and human services network.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3): 435-454.

Hui, G., & Hayllar, M. R. (2010). Creating public value in e-Government: A public-private-citizen collaboration framework in Web 2.0.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9: S120-S131.

Kim, K., Sun, J., Jogaratnam, G., & Oh, I. K. (2006). Market segmentation by activity preferences: Validation of cultural festival participants. *Event Management,* 10(4): 221-229.

Kim, N., Ahn, Y. J., & Wicks, B. E. (2014). Local festival quality and the application of a revis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case of the Jirisan Cheon-Wang Festival. *Event Management,* 18(2): 89-100.

Kim, S. C., Kim, Y. P., & Jo, H. H. (2006). Analysis of visitors' expenditure pattern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2004 Boryeong Mud Fest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6(1): 53-64.

Klijn, E. H., & Teisman, G. R. (2000). *Manag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fluencing processe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Governance in modern society (pp. 329-348). Springer Netherlands.

Knardal, P. S., & Pettersen, I. J. (2015). Creativity and management control–the diversity of festival budget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ing Projects in Business,* 8(4): 679-695.

Krause, D. R., & Ellram, L. M. (1997). Critical elements of supplier development The buying-firm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urchasing & Supply Management,* 3(1): 21-31.

Long, P. T., & Perdue, R. R. (1990). The economic impact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4): 10-14.

Lund-Thomsen, P., & Reed, D. (2009). Introduc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90: 1-2.

O'Sullivan, D., & Jackson, M. J. (2002). Festival tourism: a contributor to sustainable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0(4): 325-342.

Peters, B. G., & Pierre, J. (199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Re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2): 223-243.

Pfeffer, J., & Salancik, G. R. (2003).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Saayman, M., & Saayman, A. (2006). Does the location of arts festivals matter for the economic impact?. *Papers in Regional Science,* 85(4): 569-584.

Saleh, F., & Ryan, C. (1993). Jazz and knitwear: Factors that attract tourists to festivals. *Tourism Management,* 14(4): 289-297.

Seitanidi, M. M., & Crane, A. (2009). Implementing CSR through partnerships: Understanding the selection, design and institutionalisation of nonprofit-business partnerships. *Journal of business ethics,* 85(2): 413-429.

Selsky, J. W., & Parker, B. (2005). Cross-sector partnerships to address social issues: Challenges to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management,* 31(6): 849-873.

Sharkansky, I., & Hofferbert, R. I. (1969). Dimensions of state politics, economics, and publ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867-879.

Smith, W. W., Litvin, S. W., Canberg, A., & Tomas, S. R. (2010). Setting parameters: operational budget size and allocation of resou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1(3): 238-243.

Uysal, M., & Gitelson, R. (1994). Assessment of economic impacts: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2(1): 3-9.

Vigoda, E. (2002). From responsiveness to collaboration: Governance, citizens, and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5): 527-540.

Waddock, S. A. (1989). Understanding social partnerships: An evolutionary model of partnership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 Society,* 21(1): 78-100.

Warner, M., & Sullivan, R. (2004). *Putting partnerships to work*. Sheffield, UK: Greenleaf.

Westley, F., & Vredenburg, H. (1997).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global biodiversity. *Organization Science,* 8(4): 381-403.

Wilson, J., Arshed, N., Shaw, E., & Pret, T. (2017). Expanding the domain of festival research: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9(2): 195-213.

Yuan, J., & Jang, S. (2008). The effects of quality and satisfaction on awareness and behavioral intentions: Exploring the role of a wine festival.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3): 279-288.

Zona, F., Gomez-Mejia, L. R., & Withers, M. C. (2018). Board interlocks and firm performance: Toward a combined agency–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44(2): 589-618.

조서형(趙書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서비스 공급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책임대행제를 중심으로(2016)"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정책형성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재정능력 및 절감 노력이 지역축제의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2018)", "청원·청주 통합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학습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념체계 변화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je39us@hanmail.net).

엄태호(嚴泰皓): 시라큐스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정책결정론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Moving Beyond the Influence of Neighbors on Policy Diffusion: Local Influences on Decisions to Conduct Property Tax Reassessment in New York'이 있다(theom@yonsei.ac.kr).

〈논문접수일: 2019. 1. 3 / 심사개시일: 2019. 1. 10 / 심사완료일: 2019. 1. 25〉

Abstract

Choice and Environment: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Budget Size for Individual Local Festivals

Cho, Seohyung
Eom, Taeh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elective factors and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on local festival's total per capita budget. Specifically,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budget of individual local festivals for national autonomous regional festivals from 2013 to 2015. The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s consider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an selective fact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financial environment, which is financial environment facto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divided into the local tax burden per capita,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In addition, the previous year's budget for th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s,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the year, and the local siz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the Random Effects Model and the Newey-West estimation model, the local government's per capita budget for individual festivals increased when the operation type of the local festival wa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total model including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shows that the local allocation tax per capita, state subsidy per capita, and financial independence, both of which are financial resources, are significant for total per capita budget of each local festival in a positive direction.

Key Words: Regional Festivals, Budget, Selective Factors, Financial Environment Factors, Public-Private Partnership